학점 고칠 때만 교수님 찾나요

감사 편지 들고 연구실 가 보세요

'세족식'(洗足式)은 스승은 제자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제자는 스승에 대한 감사·존경의 마음을 담은 행사로 스승의 날, 어버이날 전후 '연례적'으로 열렸다. 학생들이 발을 씻겨드릴 때면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교수나 학부모들을 접할 수 있었다.

어버이날·스승의 날을 전후로 대학가에서 잇따랐던 '세족식' 등 행사를 보기가 쉽지 않아졌다.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과 스펙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 속에서 분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세족식 뿐 아니다. '어버이 날'과 '스승의 날' 선물로 가슴에 달아드렸던 카네이션을 갈수록 보기 힘들어졌다는 말도 나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카네이션 성수기인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앞두고 카네이션 거래량을 조사한 결과, 올해 18만 7105속으로 지난해(19만4367속)에 견줘 감소했다.

지역 대학들 '스승의 날' 행사

편지 수천통 보내고 발 마사지

초중고 은사 방문 비용 지원도

그렇다고 스승의 날, 가정의 달 행사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눈길을 끄는 학교, 학과별 행사도 적지 않다.

◇동신대, '제자가 만나러 갑니다' 눈길=동신대의 '감사 편지 쓰기'는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중인 캠페인이다. 동신대는 '인성 함양'이라는 교양 수업 시간에 초·중·고 은사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게 한 뒤 스승에 날에 맞춰 우편으로 보낸다. 올해도 학교측은 1학년들이 손으로 눌러쓴 감사 편지 1700여 통을 9일 일제히 발송했다.

동신대 운동처방학과가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제자가 찾아갑니다' 캠페인도 눈길을 끈다. 스승에 날에 맞춰 재학생들이 만나고 싶은 초·중·고 은사를 찾아가 카네이션과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행사다. 운동처방학과 교수들이 직접 카네이션과 선물을 구입해 학생들에게 건네고 시간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동신대 총학생회가 진행하는 '인사 캠페인'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스승에 날에 맞춰 열리는 대표적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총학생회는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학교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교직원들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건넨다.

◇호남대, 교수님 두피·발관리 해드려요=호남대 뷰티미용학과 학생들은 전공을 살린 '스승의 날'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교수·직원들을 대상으로 두피·발 마사지, 네일 케어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데 올해로 2년째다.

학생들은 오는 11일 선착순으로 15명씩 이용 신청을 받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학과 실습실에서 각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대, '모교 찾아갑니다' 눈길=광주대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재학생 모교방문' 행사를 진행중이다.

모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대학생활에 대한 열정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행사로 학교가 고교 은사에게 전달할 소정의 선물,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0일부터 13일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송원대, '감사합니다' 엽서 쓰기=송원대는 '어버이날', '스승의날'을 전후로 감사 엽서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지난 2012년 5월 시작한 뒤 올해가 5년째로, 학생들의 엽서를 모아 발송하는 규모도 2000장이 넘는다.

손글씨 쓰기 경험이 많지 않은 '엄지족' 세대라 비뚤빼뚤 글씨에 여러번 고쳐 쓰느라 고생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지만 한자씩 눌러쓰면서 생기는 감사의 의미가 남다르다는 반응도 많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1. 손글씨 쓰기와 인연이 없는 '엄지족' 학생들도 감사의 의미를 담은 손편지 쓰기에 적극적이다. 〈송원대 제공〉
2. 호남대 뷰티미용학과 학생들은 자신들의 전공을 살려 '스승의 날' 교수·직원 등에게 두피·발 마사지, 네일 케어 서비스를 해준다. 〈호남대 제공〉
3. 동신대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학교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교수·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행사를 지난 2013년부터 매년 5월 펼치고 있다. 〈동신대 제공〉

'광주·전남 물 포럼' 오늘 창립총회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에 대응하고 도서 지역 식수 문제 등 물 관련 이슈를 논의할 광주·전남 모임이 만들어진다.

㈔광주전남 물포럼은 10일 오후 1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립총회 및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기후 변화, 인구 증가 등으로 수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 물 문제를 다룰 민·관 공동 협의체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현재 대구·경북, 충청, 부산, 경남, 춘천 등은 민·관 공동 물포럼을 결성, 다양한 물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에 창립하는 광주·전남 물 포럼에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국제환경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공공기관 등 14곳이 참여하며 향후 지역 사회 발전과 지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물 관련 현안 문제를 이슈화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게 된다.

또 광주·전남 기후 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 창립총회에 앞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김형렬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국장과 이용운 전남대 교수 등이 각각 '안전하고 사랑받는 물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 수자원정책 방향', '영산강·섬진강 수질현황과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GIST 국제환경연구소 관계자는 "기물과 홍수 위협은 상존하고 있고 수질과 수생태계 관리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전남 도서지역은 물 이용에 취약한 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 물포럼 필요성을 언급한 뒤 "현안을 공론화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전남대 5·18 연구소 13일 학술대회

1980년 '계엄령 철폐, 신군부 퇴진'을 요구한 시민들을 군홧발로 짓밟으며 유혈 진압한 지 36년이 흘렀다.

5·18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이뤄졌고 항쟁 관련자들은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됐다. '폭동', '사태'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바뀌었고 5·18은 정부 공식 기념일로 지정됐다. 많은 게 달라졌지만 '5월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려는 시도는 그치지 않고 있다.

전남대 5·18 연구소가 36주년을 맞아 마련한 학술대회 주제를 '5·18과 역사를 둘러싼 정치'로 택한 데는 현재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오는 13일 오전 10시 전남대 용지관 광주은행홀에서 열리는 36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정치적 이념과 교육, 국민적 정체성 등을 건드리는 5·18 광주민중항쟁을 둘러싼 '왜곡'에 초점을 맞춘다.

학술대회는 '현대사와 역사 왜곡', '5·18과 역사 왜곡'이라는 테마로 진행된다.

'5·18과 역사 왜곡'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왜곡의 심화(오승용·전남대 5·18연구소) ▲5·18민주화운동 진실부인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방안(김재윤·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980년 5월 광주 그리고 북한(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임을 위한 행진곡'의 세계화(정근식·서울대)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현대사와 역사 왜곡' 부문에서는 ▲보수정권 이후 한국 근현대사 왜곡의 실태와 분석(이준식·역사정의실천연대 집행위원장) ▲굴절된 역사, 시민에 의한 역사의 진실찾기(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역사의 전복 : 반(反)한법 열전(오유석·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등이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

교육단신

정의화 국회의장, 전남대 강연

전남대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여수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초청, '청년의 꿈이 나라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CNU지식공감' 강연을 마련한다.

백영태 강원대 교수 오늘 특강

조선대는 10일 오후 4시 서석홀 대강당에서 백영태 강원대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연다.

백 교수는 조선대 무용과를 졸업한 뒤 국립발레단 솔리스트, 러시아 쌍트 페테스부르크 국립발레단 안무자 및 수석단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1998년 강원대 교수로 부임, 강원도 유일의 발레단인 '백영태발레류보브'를 창단했다.

순천대, 20일까지 북 페스티벌

순천대는 학생들의 인문 역량 향상,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2016년도 북 페스티발'을 연다.

오는 20일까지 ▲책 안의 시네마 ▲'한 줄 감상평 및 도서관에 바란다'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도서연체 기록을 없애주고 도서관 열람시간을 늦추는 이벤트도 마련된다.

20년 노하우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경, 공매 NPL컨설팅 전문업체

경매 추천물건

★ 광주 동구 동명동 대지700㎡ 건물2005㎡ ▶감정가 19억5천8백만원 최저가 13억7천만원 1층수퍼 2~8층오피스텔 푸른길인근
★ 광주 남구 주월동 6층상가 대지 342㎡ 건물 1,259㎡ ▶감정가 7억9천6백만원 최저가 7억9천6백만원 초등학교앞 학원건물
★ 전남 나주시 경현동 한수저수지 금성산입구 3층 연수원건물대지 1488㎡ 건물 2075㎡ ▶감정가 30억6천5백 최저가 7억3백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신북농공단지 현 오리가공공장 대지 3,197㎡ 건물2349㎡ ▶감정가14억 최저가 6억2천7백만원
★ 전남 화순군 동면 서성리 저수지앞 전원주택단지 토지 554㎡ ▶감정가 1억1천 최저가 6천2백만원 지대높음 전망좋음
★ 전북 순창군 복흥면 대방리 2층 전원주택 대지 698㎡ 건물230㎡ ▶감정가 1억3천1백만원 최저가 9천1백만원 신축건물
★ 광주 북구 매곡동 4층상가 대지 739㎡ 건물1,261㎡ ▶감정가 12억1천6백 최저가 8억5천1백만원 학원 식당 운영중
★ 광주 북구 신안동 1층상가3개 2층 사무실 대지210㎡ 건물152㎡ ▶감정가 1억8천6백만원 최저가 1억8천6백만원 도로변

공매 추천물건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계획관리지역 10,706㎡ 무안공항인근 펜션 부지 적합 바다 조망 ▶감정가 915백만원 최저가 915백만원
★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면사무소 인근 답 473㎡ ▶감정가 29백만원 최저가 29백만원 계획관리지역 도로변
★ 광주 서구 금호동 시영아파트 뒤편 창고 대지 350㎡ 건물177㎡ ▶감정가 240백만원 최저가 240백만원

수익형 일반매매

★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부근 근린시설용지 기업은행뒤편 대지 479㎡ ▶매매 5억8천(조정가)
★ 광주 동구 학동 일반상업지구 대지 195㎡웰빙건강랜드부근 ▶매매 2억2천만(조정가) 현 주차장이용
★ 광주 서구 화정동 6층 모텔유흥 대지 416㎡ 건물 2,000㎡ 터미널 뒤편 객실20개 상가4개 고수익율 ▶매매27억원(융13억포함)
★ 광주 광산구 우산동 80미터 도로변 3층무인텔 대지 2,372㎡ 건물 2,760㎡ 객실36개 ▶매매58억(융28억포함), 수익성 월8천정도

투자추천 일반매매

★ 광주 북구 운암동 대지469㎡ 건물 1781㎡ 지하1층~지상5층 대로변 준주거지역 ▶매매 15억(융7억4천포함)
★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융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옆 ▶매매 13억5천
★광주 남구 주월동 단층 상가 대지 675㎡ 남구청 옆 일반상업지구 투자적합 고층건물 건축가능 ▶매매24억원
★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명지원옆 중심상권 상가건물 대지 496㎡ ▶매매40억 (보증금 2억3천, 월2천7백)
★ 광주 북구 유동 오리탕거리인근 대지422㎡6층 모텔 객실28개 최신리모델링 ▶매매 8억 (융4억8천 추가3억대출가능)
★광주 광산구 월계동 숭덕고인근 대지222㎡ 건물400㎡ 원룸15개 안집방3개 ▶매매6억3천 대출2억포함 보증금 4천 월세5백
★주월동 하이마트 인근 대지 661㎡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매매13억원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펜션,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 가능 광주수익형 상가 교환가능

20년경력 010-6211-4585 조해원 / 직원모집 초보환영 / 공인중개사 010-6838-6008 강천구